

이제 총현교회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시각으로,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까지의 성경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울 왕의 초창기 통치부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의 중요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함께, 그 시대의 배경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겠습니다.

📖 성경 배경 요약 (사무엘상 11-15장)

◆ 11장 - 암몬과의 전쟁과 사울의 첫 승리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기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 12장 -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왕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고를 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왕을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 13장 - 사울의 조급함과 불순종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스스로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행동으로,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 14장 -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의 역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한 소년 병기병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 사울은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요나단이 꿀을 먹자 죽이려 하는 등,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포인트: 진정한 믿음은 규칙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 15장 - 사울의 결정적 불순종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만, 사울은 좋은 소와 왕 아각을 남깁니다. 사무엘은 이를 꾸짖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인간적 판단과 타협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 삶의 적용

1.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라 (11장)

우리의 사역이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2.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 (12장)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합니다. 회계장부보다 양심장부를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3.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라 (1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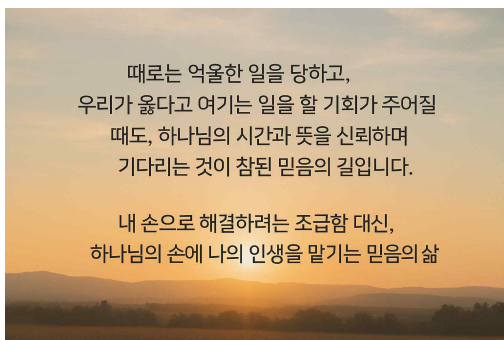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급한 결정보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14장)

요나단처럼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15장)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기도로 마무리

"하나님, 저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급함과 타협이 아닌, 주님의 때와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본문 묵상이나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தியானம்: நெருக்கடியின் நேரத்தில் தேவனுடைய மனதை பின்பற்றுதல்

(1 சாமுவேல் 21-25)

Rev. 한규삼, 충현교회

☞ காலப்பின்னணி

1 சாமுவேல் 21 முதல் 25 வரை தாவீது சௌலின் துரத்தல்களிலிருந்து தப்பித்து ஓடும் மிகுந்த குழப்பமான மற்றும் ஆபத்தான காலத்தை விவரிக்கிறது.

தாவீது தேவனின் மனதுக்கேற்ப ஒரு மனிதராக தேர்ந்தெடுக்கப்பட்டாலும், இந்தக் காலத்தில் அவன் மனிதயோகமான பயம், தவறுகள், ஆனாலும் தேவனின் சித்தத்தை நோக்கிய மனம் ஆகியவற்றைப் பிரதிபலிக்கிறார்.

சௌலின் அரசியல் வீழ்ச்சி மற்றும் ஆன்மீக வீழ்ச்சி தெளிவாக தோன்றுகிறது - அவன் தேவனுடைய ஊழியக்காரர்கள் (யாஜகர்களை) கொல்லும் வரை செல்லுகிறார்.

இந்த காலம், தாவீது எப்படி ஒரு அரசராக தேவனால் தயாராக்கப்படுகிறான் என்பதை நாம் பார்க்கும் காலம்.

☞ தியானம்

தாவீது அஹிமெலெக் என்ற யாஜகரிடம் உணவை வேண்டும்போது பொய் கூறுகிறார்.

அவனைத் தேடிக்கொண்டு வரும் சௌலிடம் இருந்து தப்பிக்க அவன் பலவிதமான இடங்களில் ஒளிந்து கொள்கிறான், ஆனால் தேவன் அவனை விலக்காதே பாதுகாப்பார்.

அதுலாம் குகையில் தன்னிடம் குறைப்பட்டவர்கள், கடனாளிகள் மற்றும் வஞ்சிக்கப்பட்டவர்கள் சேருகிறார்கள் - தாவீது ஒரு முன்னாள் அரசராக வளர்கிறான்.

சௌலைக் கொல்லும் வாய்ப்பு இருந்தும், தாவீது “தெய்வத்தால் அபிஷேகம் செய்யப்பட்டவரை” கைகொடுக்க மறுக்கிறான்.

அது தான் உண்மையான ஆன்மீக உயர்வு.

நபாலின் சம்பவத்தில், தாவீது கோபத்தில் செயல்பட முயற்சிக்கையில், அபிகாயிலின் ஞானத்தால் தன்னைக் கட்டுப்படுத்திக்கொள்கிறான்.

இன்றைய வாழ்க்கையில் பயன்பாடு

நம்முடைய வாழ்க்கையிலும் இவ்வாறான “வனாந்தர” காலங்கள் வருகின்றன - நம்மை நியாயமின்றி குற்றம் சாட்டும் சூழ்நிலைகள், பயமுட்டும் நிலைகள், நெருக்கடியான நேரங்கள்.

அந்த நேரங்களில், நாம் தாவீதுபோல தேவனுடைய சித்தத்தைத் தேடுகிறோமா, அல்லது செளல்போல் நம்முடைய கோபத்தை நடத்த விடுகிறோமா என்பதை சிந்திக்க வேண்டியது முக்கியம்.

தெய்வீக ஞானமும், நமக்குத் தேவனால் அனுப்பப்படும் அபிகாயில்களின் போதனையும் கவனித்தல் நமக்குப் பாதுகாப்பான பாதையை தரும்.

நெருக்கடிகள் நம்மை நசுக்க அல்ல - நம்மை தேவனுக்குப் பொருத்தமானவர்களாக மாற்றுவதற்கான தேவனுடைய கருவி.

묵상: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사무엘상 21-25장

한규삼 담임목사님 시각의 묵상

시대적 배경

- 사무엘상 21장에서 25장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긴박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하고, 거짓말을 하며 진설병을 받습니다. 가드 땅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며 무리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혼란과 영적 긴장감이 공존하던 때로, 다윗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 왕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본문 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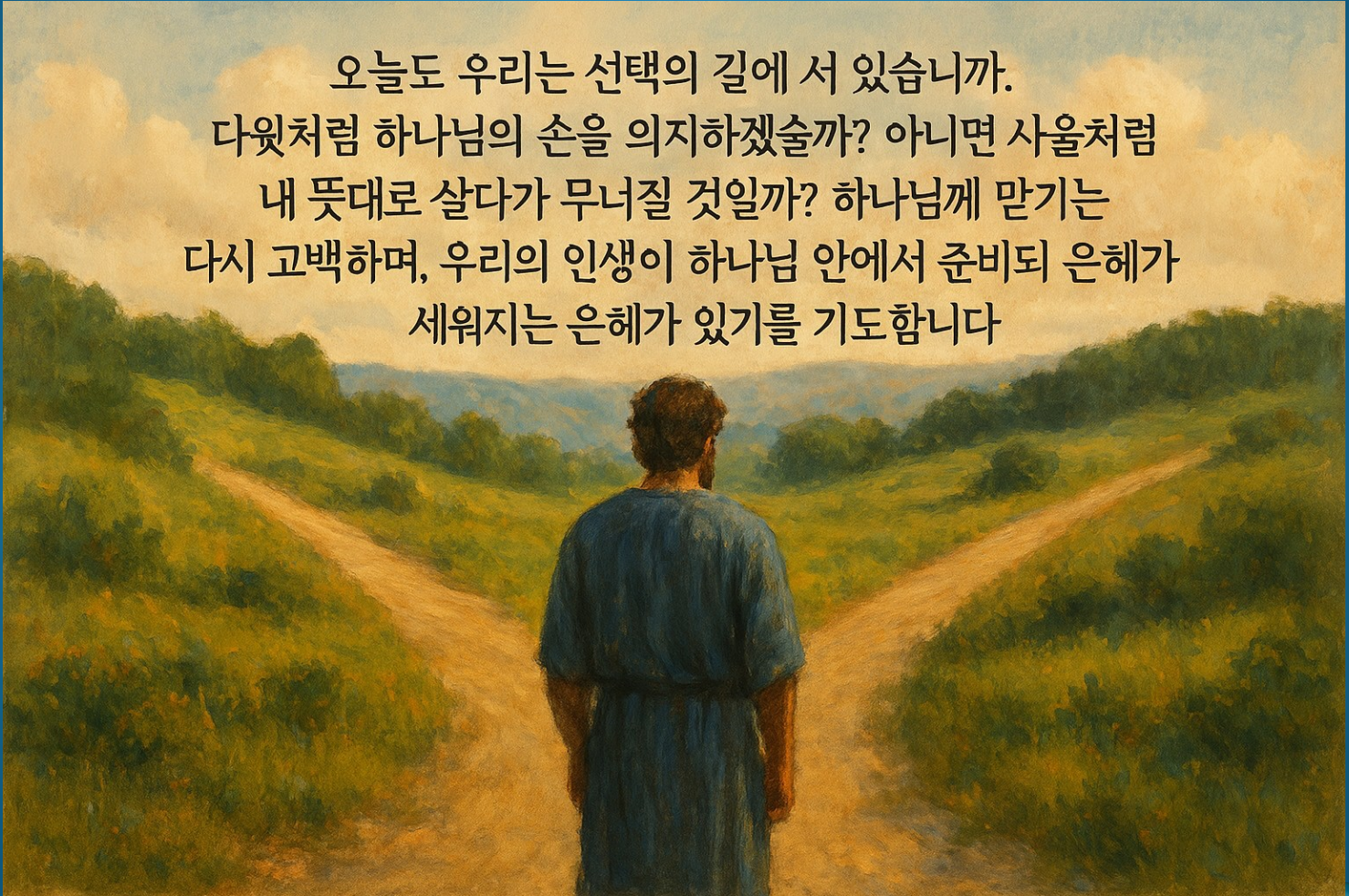
- 다윗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억눌리고 빛진 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을 길러갑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은 영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습니다. 나발과의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적용

-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억울함, 두려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비가일 같은 중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날의 적용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질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은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



사무엘상 16-20장 | 다윗의 시선으로 본 묵상

시대적 배경

- ▶ 이스라엘은 사울 왕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신임을 받지만, 곧 사울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목상

- ▶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16장). 나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돌멩이 하나로도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17장). 사울 왕의 궁정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했지만, 사울의 시기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역자 관계였습니다(18-20장). 나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적용

- ▶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실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한,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총현교회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시각으로,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울 왕의 초창기 통치부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의 중요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함께, 그 시대의 배경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겠습니다.

📖 성경 배경 요약 (사무엘상 11-15장)

◆ 11장 - 암몬과의 전쟁과 사울의 첫 승리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기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 12장 -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왕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고를 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왕을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 13장 - 사울의 조급함과 불순종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스스로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행동으로,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 14장 -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의 역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한 소년 병기병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 사울은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요나단이 꿀을 먹자 죽이려 하는 등,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포인트: 진정한 믿음은 규칙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 15장 - 사울의 결정적 불순종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만, 사울은 좋은 소와 왕 아각을 남깁니다. 사무엘은 이를 꾸짖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인간적 판단과 타협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 삶의 적용

1.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라 (11장)

우리의 사역이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2.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 (12장)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합니다. 회계장부보다 양심장부를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3.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라 (13장)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급한 결정보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14장)

요나단처럼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15장)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마무리

"하나님, 저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금함과 타협이 아닌, 주님의 때와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본문 묵상이나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주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 본문 요약 (사무엘상 6-10장)

이 구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과 첫 왕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 6장 - 법궤를 돌려보낸 블레셋

블레셋은 여호와와 법궤를 탈취했다가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순종하며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외함이 진정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 7장 - 미스바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핵심 포인트: 순종은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 8장 -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을 따르려는 것은 감춰진 불순종입니다.

◆ 9-10장 - 사울의 등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

사울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 역시 초반에는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핵심 포인트: 순종은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작됩니다. 낙위 하나님 찾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 순종의 묵상 포인트

1.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궤를 돌려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2. 회개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을 훈련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은 일상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 삶의 적용

♂ □.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기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묻는 훈련을 해보세요. 성경을 정보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태도가 경외함입니다.

↻ 2.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기

삶 가운데 무감각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 고집, 미움 등 회개할 제목을 적고 기도해 보세요.

□ 3. 하나님의 방식 vs 나의 방식 비교해보기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편한 방향’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 보세요. 순종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 4. 평범한 일상에서 순종의 기회를 찾기

사울처럼 낙위를 찾는 일처럼 평범한 일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를 묻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문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듣고, 회개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본문 묵상이나 특정 구절에 대한 나눔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